

연초 주산지에서 시여되고 있는 농가퇴비에 관한 연구

김용연, 정훈채, 황건중*

한국인삼연초연구원 수원시험장, 분석부*

연초재배 농가의 퇴비 사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황색종 주산지와 버어리종 주산지의 현지조사와 함께 퇴비시료 355점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1. 연초농가의 퇴비사용량 규모는 황색종지역은 1500kg/10a, 버어리종 지역에서는 1600-2000kg/10a가 많았다.
2. 농가퇴비의 주재료로서 우분, 왕겨, 볏짚 등을 그 밖의 잡다한 재료들과 혼합하여 퇴비로 이용하는데, 퇴비의 대부분은 우분+왕겨, 우분+볏짚+왕겨, 우분+볏짚, 계분+왕겨 등과 같은 혼합부숙물로, 미부숙 상태인 퇴비가 많았다.
3. 농가퇴비의 화학적 특성중 pH는 대부분(87%)이 7.1 이상범위에 속하여 알카리성 경향이 강하였고, 전질소는 대부분(70%내외)이 0.51-1.50% 범위에 속하고, 인산은 질소보다 더 많은 양이 함유되어(1% 이상범위 48%) 발토양의 인산축적 요인으로 판단되며, 그 밖에 가리와 석회는 1-2%, 고토는 0.5-1%, 염소는 0.5% 이하의 범위에 대부분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전반적으로 순수 볏짚퇴비보다는 연초재배 농가퇴비가, 황색종(연초재배)지역보다는 버어리종 지역에서 사용되고있는 퇴비가 더욱 높은 비료 함량치를 보였다.